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많은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이미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며칠간 계속된 연장 근무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탁구경기를 하는 바람에 병이 돌연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Q 새내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이용하다가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갑상선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윤씨는 며칠간 연장근무가 계속되던 2002년 2월 야간작업을 앞둔 휴식시간에 회사 공장에 설치된 탁구장에서 동료들과 탁구경

기를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4월 12일 회사 안에 설치된 탁구장에서 탁구경기를 하다 갑자기 실신해 숨진 윤씨의 아내 송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망과 업무간 관련성이 없다며 보상을 지급하지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균형잡힌 식사와 건강한 소화작용이 실제 안색과 입술에 화색을 주며 반대로 오랜 기간의 영양실조나 결핍 혹은 체했을 경우 백반증이 생기거나 안색이 노래지는 것을 흔히 봤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脾胃를 잘 다스려 준다면 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부수적으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즉 脾胃를 다스리는 것이 비만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脾胃가 조절이 되는 것은 곧 脾胃와 관련된 우리몸의 근육, 지방, 四肢, 七情(희노애락비공경의 감정, 사고 등의 정신활동), 화색, 안색, 수액대사를 치료하는 의미입니다.

한방적으로 접근해본 다이어트①

'웰빙과 더불어' 웰 루킹(Well looking: 매력적인 외모)의 비법이 한창 부는 요즘 '한방다이어트'란 말도 어느새 친근한 말이 되었습니다. 한의학 적 시각에서 다이어트를 보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脾胃(비)라는 개념이 빠질 수 없습니다. 脾胃는 단순히 해부학적 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기계와 인체 중앙에서 각종 생명유지 작용을 하는 축(axis)을 의미합니다. 한의학에서는 脾胃가 근육 및 피하지방(肌肉: fat and muscle), 우리 몸의 팔, 다리(四肢: extremities), 사고, 사례 및

감정(七情: emotions and thoughts)과 관련 짓고 있습니다. 또한 脾胃의 기능은 수액 및 신진 대사를 관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脾胃의 건강 상태(華氣)는 입술(脣)에 나타나며 병리상태는 주로 혀와 안색에서 확인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소화기관의 상태는 우리의 소화기능 및 식사습관을 좌우하며 우리의 식이습관은 궁극적으로 우리몸의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좌우합니다. 또한 밤을 못먹었을 때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생각하고 열려가 많으면 소화기능이 안되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나 욕구불만 혹은 분노로 폭식이나 과식을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안과과장 신재용



아침에 일어날 때 눈곱에 의해 눈꺼풀이 붙어 있을 정도로 심하게 눈곱이 끼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귀 아래쪽의 림파선이 부어서 통증을 느낄 때도 있다. 어린이의 경우 열이 날 수도 있다. 이상의 증상이 양안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한쪽 눈에 먼저 생긴 후 3~4일 후 반대편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때 치료를 시작하여도 곧바로 호전되지 않고 악화 정도 되어야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치료를 계속하면 1주내지 2주 되었을 때 눈곱과 충혈이 점차 감소하는데 이때 각막에도 염증이 파급되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이물질감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각막의 염증이 심한 경우는 각막이 다소 혼탁하게 되어 가벼운 시각장애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각막혼탁은 대부분 몇 달 이내에 없어지지만 수 년 이상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염증이 심한 경우 안구건조증이나 각막혼탁 등이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흔하므로 염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름철의 눈의 질환·결막염

일반적으로 눈병이라고 말하는 유행성 전염 안질환은 눈이 충혈되며 눈곱이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세균성, 진균성, 바이러스성, 알레르기성, 화학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 극성을 부리는 유행성 눈병의 경우는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것이다. 대표적인 눈병을 살펴보면 유행성 각결막염, 인후 결막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등을 들 수 있고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전염성이 강한 대표적인 눈병은 유행성 각결막염이다. 일반적인 눈병의 증상은 많은 눈곱과 분비물, 충혈이며 그 외 증상으로는

이물감, 작열감, 안검 및 결막의 부종, 통증, 시력 감소, 눈물, 입파선의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눈병은 공기 중으로는 전염되지 않고 손에 의한 접촉으로 전파된다. 여름철에 많이 생기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눈병에 전염되어 임상증상을 치료하더라도 병이 완전히 좋아지는 못하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전에 걸리더라도 면역을 특별히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다시 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좋은 방법이다.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접촉에 의해 눈에 들어가면 약 5일 지난 후 심한 이물감이 생기면서 눈꺼풀과 결막이 붓고 눈이 충혈되며 눈곱도 많이 낀다.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졌 습니다. 당시 하리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며칠 전 퇴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A 소멸시효제도는 권리가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

소되었고 증거보전의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경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권리자라도 일정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주장하는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 제766조). 위 사안에서 귀하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만료일이 임박하였으므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으며, 즉시 그러한 법적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통지하십시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효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자체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입니다. (대법원 1979.2.13. 79다2157).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중년여성의 시춘기

옛 한 성현은 사십의 나이를 불혹(不惑)의 나이라 했습니다. 불혹이란 마음의 흔들림이나 망설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십을 넘은 우리 중년여성들은 지금 생각해보니 이 말은 사십이 되면 마음이 흔들리니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예방차원에서 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중년여성은 남성과 다른 의미의 중년을 맞습니다. 여성의 중년기는 우선 신체적 생물학적인 인식과 불안감과 함께 자녀와 점차

분리되는 때입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앞날을 확실하게 꿰어본 것이 중심의 문화 속에서 볼 장 다 본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자녀도 성장했고, 집안일도 한결 줄고, 폐경을 맞이하면서 임신과 출산에서 해방되어 성에 대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중년기를 잘 보내려면 첫째로 신체적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고 피부의 탄력은 줄어들고 골다공증, 폐경이 생기면서 특히 얼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신적 교육을 의미전환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아이들은 성장하고 삶이 허무해 지는데 이때 자기 삶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개집 큰 딸' '모 과장부인' '순이 엄마'가 아니라 'K(ooo)'로 설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일 중심, 가족중심에서 관계중심, 나 중심으로 재평가 해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만 신경을 쓰는데, 감정이 메마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이제가 말로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중년이란 젊음과 늙음이 적절히 인베되어 있어 인생에서 더없이 흥미로운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 031-542-3171)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2003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 건에 대한 매출 중 일부는 결재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려고 합니다. 민약에 카드결제를 할 경우 우리 쪽으로 다시 매출로 잡아서 부가세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부가세 납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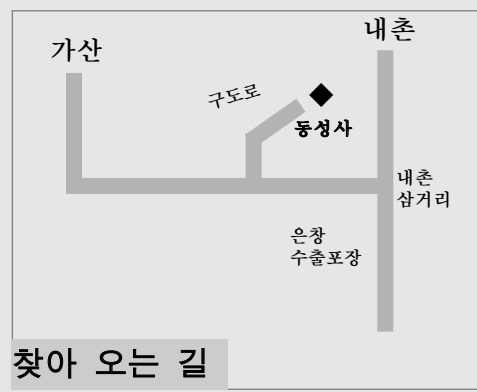
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담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 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문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송관수 02-404-9944)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생·산·품·목

- ◇ 오디오 장식장
◇ 인테리어 소품
◇ 가구 장식품 부품
◇ 불박이장 부품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532-2123, Fax: 031)532-2122/ 대표 : 윤 이용